

현장답사 중심의 護國遺物 집대성

한국보이스카우트연맹 펴냄 「韓國의 城郭과 烽燧」

전국에 산재한 호국유적을 직접 답사,

실측한 보고서를 집대성한 이 책에는

총 1,508개소의 성곽과

283개소의 봉수대가 소개돼 있다.

그 축성방법이나 시기, 규모,

관련전설들까지 광범하게 수록한

이 책은 학술적 가치와 교육적 효과를

한데 아우르고 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된다.

전국의 성곽과 봉수대의 실태를 국내 최초로 집대성한 자료집 「韓國의 城郭과 烽燧」가 최근 한국보이스카우트연맹 (총재 金錫元)에 의해 간행됐다.

총 2,268면, 전3권으로 구성된 이 자료집은 한국보이스카우트연맹 소속 대원들이 전국에 산재한 호국유적을 직접 답사, 실측한 보고서를 집대성한 것으로써, 1508개소의 성곽과 283개소의 봉수대를 지역별로 나누어 축성방법, 규모, 축성시기, 관련용어 등은 물론 발굴유물과 관련전설 등을 1500여점의 사진자료와 함께 폭넓게 수록하고 있어 학술적으로도 그 가치가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이 자료집은 봉수대가 전혀 없는 것으로 알려졌던 인천과 대구에 각각 3개소가 있다는 사실을 새롭게 밝혀 낸 것을 비롯, 전국적으로 362개소의 성곽 및 43개소의 봉수대를 새로 발굴해 돋보이는데, 그간 산발적으로 이루어졌던 이 방면 연구의 총괄이라는 점에서 사계의 각별한 주목을 끌고 있다.

모두 1,791개소의 성곽 및 봉수대 소개

한국보이스카우트연맹측이 이 자료집의 간행을 기획한 것은 지난 1986년의 일. "30만명에 이르는 스카우트의 조직력과 기능을 활용하여 호국유적을 답사하고 이를 자료로 집대성하자"는 金錫元 총재의 제안으로 이듬해부터 3년간 실시된 '전국 호국유적 답사활동'이 그 밑바탕이 되었다.

1987년 1월 충북 보은의 삼년산성 답사를 시발로 전국 스카우트의 지역별 단위가 각각 고장의 성곽과 봉수대를 답사, 중앙본부에 제출한 보고서를 취합하여 이것을 다시 이 분야의 전문연구자들에게 집필을 위촉하는



전남 진도군 임회면 남동리 소재 남도성성

식으로 작업이 진행됐다. 집필위원은 모두 3명으로 李元根교수(강릉대)가 서울·인천·경기·강원·충북·충남지역, 崔根茂교수(전주교대)가 전북·전남·광주·제주지역, 盧憲植교장(경북 의성 춘산중)이 부산·대구·경북·경남지역의 집필을 맡아했다.

원고집필의 원칙에 대해서 李元根교수는 "유적과 관계된 위대한 장군이나 위인들의 업적만을 기리는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이름없는 民草들, 성곽을 지키려고 결사항전하다 그 누벽을 베개 삼아 죽은 선인들, 산간오지의 봉수대에서 역경과 신분상의 천대를 받으면서도 국가의 위급을 전하던 수많은 선조들의 흔적을 남기는데 보다 큰 비중을 두었다"고 밝히고 있다. 이같은 집필원칙은 "지난 2천년간 900여회의 외침을 당하면서 이 땅에 오늘의 우리가 있기까지 우리를 지켜준 조상의 지혜와 불굴의 의지를 오늘의 청소년들이 다시 새겨보도록 하는 데 더 큰 목적을 두었다"는 同연맹 김규영사무총장의 말과도 일치하는데, 말하자면 학술적인 것 못지 않은 교육적 효과 또한 이 자료집의 진정한 가치라는 것이다.

호국유물 복원대책의 시급함 일깨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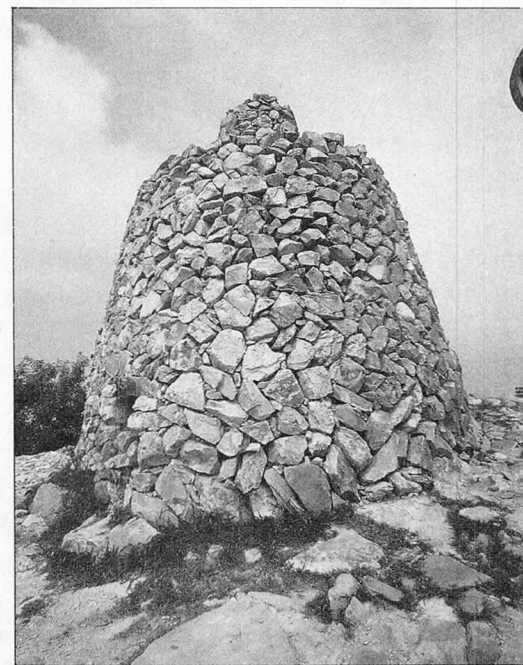
「한국의 성곽과 봉수」는 크게 '성곽편'과 '봉수편'의 두부분으로 구성돼 있다. 상권과 중권, 그리고 하권의 일부가 성곽편에, 그 나머지가 봉수편에 할애돼 있으며, 각각 성곽과 봉수의 전반적 이해를 돕는 '개설'에 이어 개별 유물에 대한 각론적 기사를 지역별로 배열하

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먼저 성곽의 경우, 우리나라는 山城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상고 이래 900여회에 걸친 외침에도 불구하고 국가의 명맥을 유지해온 것은 중요 요충지와 국경에 산성을 쌓았기 때문이라는 것. 또한 우리나라의 산성은 성 안에 주변의 모든 주민을 수용하는 共生共死를 도모하는 형태로서, 일부 계층이나 성주의 생명과 재산만을 보호했던 중국이나 일본의 성과는 그 특색을 달리한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있어 흥미를 끈다.

한편, 삼국시대부터 갑오경장(1894)까지 실시된 우리나라 봉수제도는 중앙에서 떨어져 있는 국경과 해인지방으로 침범해오는 외적의 이동상황을 밤에는 횃불, 낮에는 연기로 수도에 신속히 전달하여 중앙정부가 대책을 수립하고 방어태세를 갖추으로써 국가안녕과 질서를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이 자료집에 따르면, 건국과 호국의 상징이라 할 수 있는 성곽과 봉수대가 전국 곳곳에 산재해 있으나 대부분이 허물어지거나 훼손되어 원래의 모습을 찾아볼 수 없는 곳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 그 보존 및 복원대책의 시급함을 일깨우기도 한다.



전남 해남군 송지면 송호리 소재 갈두산봉수대

한국보이스카우트연맹은 이번 자료집에 수록된 성곽과 봉수대는 앞으로도 계속될 스카우트활동을 통해 지속적으로 발굴, 보완해 나갈 예정이었는데, "남북교류가 본격화되면 북한지역에서의 유물답사도 추진할 계획"이라는 것이 김석원총재의 말이다.

한편 동 연맹은 지난 8일 오후 5시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한국의 성곽과 봉수」 출판기념회를 가진 바 있다.